



---

# 환경보전 과 청소년

---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는 일찍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대변화의 시대로서, 우리는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 지역화시대, 국경없는 시대, 그리고 급속도로 진전하는 과학, 기술의 첨단화, 정보화가 전개되는 “총체적 대전환”이 예상되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있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이 시대의 청소년상을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의 청소년은 장차 어떤 국제무대에서도 뒤지지않는 실력과 품성을 겸비한 청소년, 어려움과 손해도 감수할 줄 알고, 자신을 책임지을 줄 알며 질서가 체질화된 민주시민다운 청소년, 통일국가를 대비하여 근점절약하는 청소년, 그리고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내일의 지구를 책임질 수 있는 세계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 21세기적 비전을 가지고 생활의 과학화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청소년... 이러한 청소년의 모습이 총체적 대전환의 21세기를 대비하는 청소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팍 광자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요즘 거리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어른들이 망쳐놓은 것을 왜 아이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벌이느냐고 이운동에 청소년의 참여를 반대하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미 고정화된 사고와 그행동이 고착화된 기성세대를 움직여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이 운동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인식하고, 기성세대를 포함하여 이 사회를 계도해나감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살려내는 환경보전 활동이야말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꼭 강조하고 지도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구호아래 근대화 정책 만을 지향하면서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없이 산업화 및 도시화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성장일변도를 달려왔습니다.

1980년대 이르러서는 체계적인 국가 정책하에 최적 공업사회를 형성하였습니다. 모든것이 규격화 되어가고 공업화되어진 과정에서 거대화화 대량생산이 미덕인 시대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공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발전한다'는 미명아래 여기저기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점들을 외면했고,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파손되어가는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자연보전이나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인식을 넓힐 기회를 갖지 못했기에 오늘 우리의 금수강산은 그 이름이 무색하리 만큼 황폐해지고 회생의 가능성마저 의심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청소년에게 환경교육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차대한 우리 기성세대의 과제라고 봅니다. 더우기 오늘날의 시대는 전세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상호의존적이기에 한 나라의 그릇된 환경정책이 전 세계를 오염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이 지구를 물려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게 만든다는 것을 주시시켜 단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자신들의 책임을 깊이 인식케 해야 할 것입니다.

걸스카우트 운동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교육 및 환경보전 활동을 중요한 이슈로 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걸스카우트 세계연맹(World

Association of Girl Guides and Girl Scouts)은 인식교육을 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지침을 보급하였고, UNEP와 협력하여 깨끗한 수자원 보호를 위한 청소년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역별로 환경보전에 관한 워킹샷을 실시하여 그 지역에 맞는 환경보전활동을 여러나라가 함께 의논케 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 펼쳐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걸스카우트를 비롯하여 각 회원국은 자기 나라에 맞는 환경보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호주연맹은 그 나라의 변화된 환경조건에 맞도록 모자의 창을 넓게 변경하였고, 토양에 관한 기능장(Proficiency badge), 공기에 관한 기능장등, 청소년들이 그 중요성을 알아야하는 각 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기능장제도를 만들어 취득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오염으로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가 멸종의 위기에 달함을 널리 알리고 그 개선책 연구와 함께 모금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환경보전이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일본에서는 요일별 쓰레기 분리 수거나 재활용품의 경우 버릴 때 그 용도와 사용가능성을 기재하여 부착해 놓는 일, 야외 활동시 도시락을 지참하는 점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 걸스카우트연맹이 앞장섰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연맹은 야영등 야외활동시 쓰레기 분리수거는 물론 장작으로 취사를 하게 함으로서 공기의 오염을 방지하고 있으며 텐트를 칠때도 잔디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지도하는등 활동 자체가 환경보전 교육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의 경우 과거의 자연보호활동에서 환경보전 활동으로의 변화를 기하며 대원과 지도자들의 인식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계몽활동이란 차원에서 환경보전 노래부르기 캠페인을 전개케 함으로써 대원스스로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있으며 스카우트활동의 주된 활동이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보전 산행을 실시하여 야외에서의 환경보전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소녀들은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최소한의 불을 이용한 취사활동을 하

게되고, 야외에서는 가능한 설것이를 하지 않은 채 가  
져오게 지도하고, 특히 자신의 쓰레기는 물론 주변의  
쓰레기까지 수거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스  
카우트가 지나간 자리에는 '감사'외에는 아무것도 남  
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스, 헤어스프레이, 샴푸등 소녀들이 흔히  
사용하는 합성세제의 사용을 억제케하고, 가정에서 세  
척제를 대신하여 밀가루를 사용하게 하거나 페지, 폐품  
의 재활용, 절전 절수등 가정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환경보전치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원, 임원 훈련이나 대원행사, 지도자  
강습시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생긴 유럽의  
환경적 변화등 지구의 역사와 환경등 전세계적 경향에  
대해 인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서울 가꾸기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도시환  
경개선활동(검떼기, 공공시설 미화작업)이나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대별로 1곳씩 봉사장(Spec  
ial Area Service Project)을 선정, 꾸준히 개선활동  
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을 향상시키기위해서는  
걸스카우트 운동은 물론 각 청소년 단체들이 연계하여  
청소년은 물론 사회전반에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강  
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개선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  
록 운영해야겠으며, 또한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함께,  
책임의식을 키워 국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관한 압력세  
력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있는 한 미래는 밝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